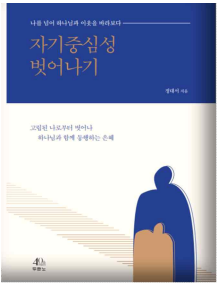




스물네번째 이야기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2020 '준비하라' 시리즈 ⑨]



예배 후 서점에 내려와 도서 훑어 보다가 중에 신간 코너에서 너무 반가운 이름을 발견하였습니다. 책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책을 보니 너무 반갑고 또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자이신 정대서 장로님께 따끈따끈한 책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BEE수: 장로님 반갑습니다. 먼저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지금 누구나 더욱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을 출판하셨으니 남다른 고민을 많이하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대서 장로: 제가 70이 되고 보니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 나이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드는 생각이 “내 자녀들과 손녀들은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장로님 부부와 손녀딸

할아버지로서 고민이었는데 구체적인 기도를 책으로 써서 남기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입니다.

BEE수: 책이 나오기까지 이런 오랜 시간의 고뇌와 기도가 있으셨군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이라고 하셨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 기억나는 일이나 자녀를 위한 기도 중 응답받은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정대서 장로: 큰아이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미국에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혼자라도 유학을 보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사춘기 딸아이가 혼자 유학한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몇 년이 지난 뒤, 고3 때 어느 날 딸아이 방을 보니 휴지가 한가득 널려 있었어요. 자초지종을 물으니 몇 년째 하나님께 유학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어 이제 그만 기도할래요 하고 울다 잠이 들었다더군요. 부모로서 마음이 무척 아팠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부부는 물론 큰아idé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BEE수: 어린 나이에 몇 년 동안 기도한 딸도 대단하고, 자녀 교육의 정확한 기준을 두고 양육하셨던 장로님 부부도 넘 멋집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건 아내 이해정 권사님 덕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권사님 자랑 좀 해주세요.

정대서 장로: 아내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래 참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대학에 올라가면서 교회 대학부 리더 선배에게 시험이 들어서 그 이후 결혼 생활 몇 년이 지나기까지 교회에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창조주의 존재를 확신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전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오다가 나이가 찼을 때에는 “합당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하는 작정기도를 하는 중에 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 보니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여러 번 전도도 하고 설득도 해 보았지만 제가 워낙 고집이 센 사람이라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했는데 8년 만에 제가 온누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 후 5년 만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아내는 저를 향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준 큰 은인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해가 갑니다. 우선 세미나 때마다 먹는 것으로 섬기는 일은 주로 이 권사가 해요. 기쁨으로 섬기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권사는 세미나 중에 가끔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체험들을 간증으로 들려주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 권사가 사람들에게 수다쟁이 할머니인척 하면서 부드럽게 대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BEE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는 실제 선배 부부의 삶을 옆에서 경험하는 제자 양육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장로님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에 헌신하시는 이유가 ‘선교’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정대서 장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될만한 성품을 빚어내는 이 땅에서의 훈련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성품 훈련과 관계훈련이 아닐까요? 이러한 훈련을 가장 깊이 있게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이지요. 가정은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믿음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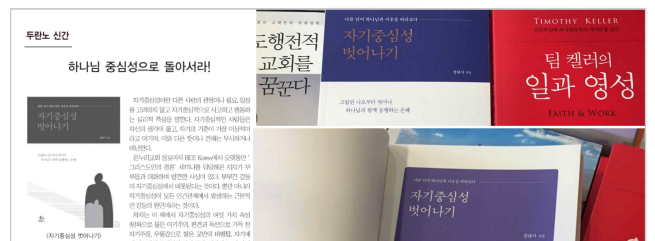
‘선교’란 무엇입니까?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공동체를 닮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바르게 체험하고 성품을 바르게 훈련하는 것은 우선 가정에서 시작되고,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선교의 요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

BEE수: 두 분이 최근 몇 년간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를 함께 인도하시며 느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대서 장로: 그걸 세미나에서 교재 내용과 그 배경이 되는 영적인 면들은 주로 제가 강의하며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이 권사를 더 좋아하고 이 권사와 대화를 하면서 더 은혜를 받아요. 저는 약간 억울하죠 (웃음).



BEE수: 장로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정이 곧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가장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으신지요?

정대서 장로: 첫째는 동역자들께서 참고서로 활용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구요 둘째는 머리가 커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읽혀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과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중요한 오해들이 풀어진다면 저로서도 큰 영광이겠습니다.

BEE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싶은 모든 예비 부부들과 또 현재 가정을 꾸려가며 동시에 선교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은 모든 부부에게 필요한 책이라 여겨지네요. 장로님 바쁜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의 소제목처럼 나를 넘어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가을 따끈따끈한 신간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더구나 2판 인쇄가 벌써 결정되었다고 하니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건강해지고 많은 신앙의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 펜을 드는 결단을 하실 것 같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정리 : 정주영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라는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2.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하향과 함께 드디어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BEE 가족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을 잘 지키며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BEE 가족 모두가 대면으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꼭 그곳이 알고싶다 선교지  VIETNAM



[베트남 건축물-오페라하우스]
 하노이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건축을 시작해서 1911년도에 완공하였다. 당시 식민지를 다스리는 프랑스 관리들의 우아한 문화 생활을 위해 오페라 공연장으로 지은 것이다.